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2ND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1월 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7 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통일 24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5 번 시편 103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8:10-23	임필재 집사
찬 양 Anthem	“내 아버지 집”	찬양대
설 교 Sermon	“혼자 할 수 없으리라” (You Cannot Handle It Alone)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했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하면서도,

주님의 몸 된 지체를 사랑하며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말로만 끝나 버렸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과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개역개정 **출18:17-18**)

“Moses' father-in-law replied, ‘What you are doing is not good. You and these people who come to you will only wear yourselves out. The work is too heavy for you; you cannot handle it alone.’” (NIV **Exodus18:17-18**)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6 (주일)	11/7 (월)	11/8 (화)	11/9 (수)	11/10 (목)	11/11 (금)	11/12 (토)
	왕하19	왕하20	왕하21	왕하22	왕하23	왕하24	왕하25
본문	히1	히2	히3	히4	히5	히6	히7
	호12	호13	호14	율1	율2	율3	암1
	시135,136	시137,138	시139	시140,141	시142,143	시144	시1145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9수 오후7:30)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요일2:18-29)
토요 새벽기도회(11/12토 오전6:30)	말씀: 이성우 장로

지난 주일(10/30)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21)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출 17:8-16)

호렘 산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통해, 갈증을 해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다른 위기의 상황(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약자들을 뒤에서 공격해온 것입니다. 이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고 명했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즉,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산 아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반대로)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곧바로) 아말렉 족속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싸움은 (지금)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산 아래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즉, 1)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싸우는 싸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었고, 그래서 2)이 싸움에서 더 중요한 전장은 산 아래가 아니라, (바로) 산 위에 었으며, 3)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 모세는 계속해서 손을 들어 하늘(하나님)을 향해 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닛시 (여호와와 나의 깃발)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론과 훌처럼) 지친 이에게 말없이 다가와 지친 두 팔을 붙들어 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